

내년 5월부터 KTX '표 구하기 전쟁' 해소된다

호남고속선 변전소 용량 증설 예산 100억원 반영
KTX 청룡 중련 가능…515석서 1030석으로 늘어
KTX 연장 운행도…호남고속선 증편 기반 구축

호남선 KTX 개통 10년 만에 하루 두 차례 증편 운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호남선 KTX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에 호남선 KTX-청룡 기관차 두 대 이상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가 확보된 데 따른 것으로, 고속철도 불평등 해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룡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KTX-청룡 증편 편성 시 기존 KTX-1 대비 약 1.4배의 전력이 소비되며, 안정적인 증편 운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KTX-청룡(증련)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정읍시 소재 노령변전소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 변전소 용량 증설의 시급성이 정식 제기됐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오는 2028년 평택~오송 북부선화 사업 완료 이전에도 KTX-청룡 증련 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호남고속선 내 노령 변전소를 포함해 개량이 필요한 4개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비 확보로 노령변전소(전복 정읍)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KTX-청룡의 증편 운행이 가능해져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일 상·하행 1편씩 운행 중인 KTX-청룡은 1편성에 8량 515석이다. 이를 증편으로 운행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좌석은 1편당 1030석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주력인 KTX-산천 증편 편성(758석)보다 약 300석 가까이 많은 규모다. 이날 기준 광주송정역에 26회 정차하는 KTX-산천은 1편성 10량 379석이다.

여기에 광주송정역과 서울(강남) 수서역을 잇는 수서발 고속열차(SRT) 좌석도 늘어날 수 있다. 하루 광주송정역을

40회 통과하는 SRT는 1편성 8량 410석이다. 이를 증편 운행시 16량에 820석이 된다.

KTX-산천과 KTX-청룡, SRT 등 열차가 모두 증편으로 전환되면, 호남선 좌석은 1일 4만8294석에서 7만5578석으로 2만 7284석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KTX-1(18량 955석·광주송정역 22회 운행)은 열차 제원 등의 이유로 증편이 어려운데다 다른 열차도 증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좌석은 이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반복되며 '표 구하기 전쟁' 등 시민들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에 KTX-청룡 및 KTX-1 증편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변전소 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데 따른 성과로 분석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23일 광주송정역에서 지역·정치권·시민들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호남선 운행 불공정 해소와 증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강기정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증편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용산~이신역을 왕복하던 KTX-산천 열차 하루 4편 증상 행선과 하행선 각 1편씩 총 2편이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중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민주, '1인1표제' 오늘 중앙위서 확정

'전략지역 표심에 기중치 부여' 보완책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4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일부 반발은 영남·강원 등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지역 표심에 기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무위원회가 77명 중 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 등 5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

임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5일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면 의결 사항을 통보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의결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선

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최고위원 후